

전영창의 기독교교육의 기초적 신념과 교육적 인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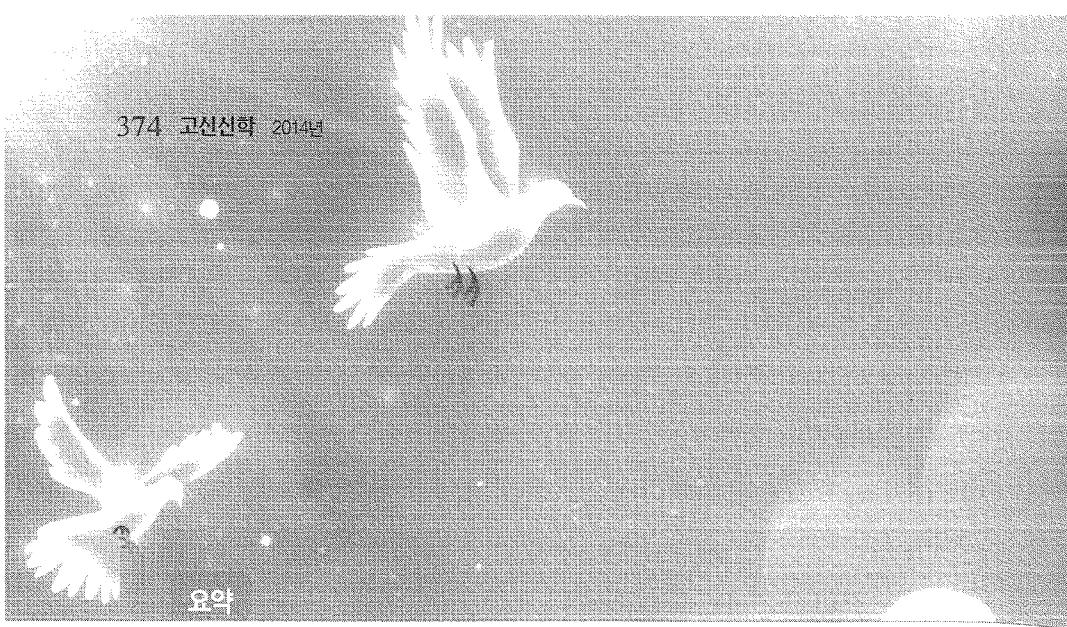
Jeon Young-Chang's Educational
Fundamental Ideas and View of Man

조성국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교수

목 차

1. 들어가면서: 전영창에 대한 새로운 평가의 필요성 | 379
2. 기독교교육의 기초적 신념 | 386
3. 기독교신앙에 기초한 교육적 인간상 | 394
4. 나가면서 | 400



전영창의 기독교교육의 기초적 신념과 교육적 인간상

거창고등학교와 더불어 우리나라 기독교학교교육의 특별한 모델을 만들었던 기독교교육가 전영창은, 고신교단 역사의 초기였던 6.25 전쟁 중, 부산을 중심으로 고신교단과 조우하여 현재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초기 형태인 복음 진료소(복음의원) 설립과 운영에 큰 역할을 한 일로 초기 교단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그리나 전영창이 고신교단을 떠난 후, 고신교단의 교회내로의 좁은 관심과 이원론적 시야로 인해, 비록 전영창은 동일한 신앙을 가졌으나, 고신교단은 학교의 목자로 일한 그의 학교교육활동을 의미 있게 주목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그가 헌신했던 기독교학교교육에서의 결실을 공유하지 못했다. 한상동에 의한 고려신학대학교(고신대학교)가 해방이후 한국 신학교의 모델이 되었던 것처럼, 장기력에 의한 복음병원은 해방이후 한국 기독교병원의 모델이었고, 특히 전영창에 의한 거창고등학교는 해방이후 한국 기독교학교의 모델이 되었다. 따라서 전영창과 거창고등학교는 한상동과 고신대학교만큼이나 의미 있는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전영창의 기독교교육의 기초적 신념은 기독교신앙에 기초한 애국심, 그리고 기독교신앙에 기초한 고난극복의 신념이었다. 그가 지향한 교육적 인간상은 정의로운 인간, 교양과 실력을 갖춘 글로벌 지식인, 그리고 국가와 사회, 약자와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인간이었다. 이러한 그의 기초 신념들은 그의 살아있는 기독교신앙의 통찰로부터 나온 것이며, 그는 기독교신앙이 이러한 참 인간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그는 목자인 교사로서 자신의 신념들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구체화한 모범 사례였으므로 제자들로부터 한국의 페스탈로찌, 조국의 목자로 추앙받았다. 전영창과 거창고등학교는 기독교신앙이 한국사회와 학교 교육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보여준 의미 있는 기독교학교교육모델이다.

* 본 논문은 여기서는 전문적인 학술적 논문으로 학술적 형식에 맞추어 작성된 후 발표되고, 비슷한 시기에 출간되는, 김도일 외.『참스승: 인물로 보는 한국 기독교교육사상』(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의 제10장에서 “전영창: 학교의 목자 조국의 목자”라는 제목으로도 출간 예정이며, 학술지와 달리 전문교양 도서의 요구에 맞춘 형식에, 그 분량과 표현양식을 상당부분 달리하여 발표된다.



요약

Jeon Young-Chang's Educational Fundamental Ideas and View of Man

주요어

전영창, 거창고등학교, 기독교교육, 기독교학교, 기독교교육사상

Abstract**Jeon Young-Chang's Educational Fundamental Ideas
and View of Man**

Prof. Dr. Joh Song-guk

Jeon Young-Chang who established a peculiar Korean model of Christian school (GeoChang High School), had previously established and administered the Gospel Clinic (the early form of the Gospel Hospital) as an important member of the trustee board (KyeongNam Welfare Committee) with Kosin denomination leaders in Busan during the 6.25 Korean War. His name was only written in the early part of Kosin history.

After Jeon's departure from Kosin denomination, he and his school were not given official attention any more to Kosin denomination, even though he and Kosin leaders had the same color of evangelical theological basis, because Kosin denomination concentrated her attention only to churches and the Korea Theological Seminary. However, Jeon's school was a significant Korean model in Christian schooling in modern Korean society, just as both Han Sang-Dong's Korea Theological Seminary was a Korean model of theological education and Dr. Jang Gi-Rye's Gospel Hospital was a Korean model of Christian hospital. Jeon Young-Chang and his school have to

be fully recognized as a conspicuous model in Kosin and Korean Christian education.

Jeon Young-Chang's fundamental beliefs of Christian schooling are summarized as patriotism and perseverance coming from Christian faith. Many topics of his speeches and sermons were aimed at encouraging them. His educational ideal inner elements of man were the righteous courage, global intellectuals, and philanthropic servant leadership. His beliefs came from his experiences of Christian life and the Bible mediation. He convinced that the Bible and Christian faith could form such a person. He taught the virtues as well as he was an actual model of the virtues like a good shepherd. He was respected as a Korean Pestalozzi and a fatherland pastor by his colleagues and students. Jeon Young-Chang and GeoChang High School has to be fully recognized as a Korean typical Christian teacher and a Christian school of Korean society in the latter part of the 20th century.

Keywords

Jeon Young-Chang, GeoChang High School,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school, Christian ideals of education

1. 들어가면서: 전영창에 대한 새로운 평가의 필요성

거창고등학교와 더불어 기독교학교교육의 특별한 모델을 만들었던 기독교교육가 전영창은 고신교단 역사의 초기였던 6.25 전쟁 중, 부산을 중심으로 고신교단과 조우하여, 현재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초기 형태인 복음진료소(복음의원) 설립과 운영에 큰 역할을 한 일로 교단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전영창은 미국에서 유학중 6.25전쟁발발하자 자발적으로 귀국하였고, 미국에서 친구들이 마련해 준 의연금 5천 달러를 기반으로 피난민을 구호하기 위해 김상도 목사 등과 부산노회 내에 대한기독교경남구제회를 조직하여 첫 번째 대표가 되었다. 그는 UN민간원조처로부터 약품지원을 약속받은 후, 한상동 목사의 도움으로 당시 제3육군병원에 있던 장기려를 만나 설득하여 원장으로 초빙하였고, 제3영도교회에 복음진료소(복음의원)를 세워 운영하였다. 이후 장소를 옮겨 천막병원으로 독립 발전했던 복음의원의 초기 의료진은 장기려와 전종희, 병원운영은 전영창, 병원원목은 김상도였다.¹⁾

그러나 이후 복음의원을 운영하던 경남구제회에서 전영창은 열정적으로 일했으나 위원회의 결의 없이 주도적으로 일을 추진했다고 반발하던 다른 위원들과의 갈등이 깊어져 결국 병원운영에서 배제되었고,²⁾ 6.25 전쟁이 끝나자 미국으로 다시 유학길에 올랐다. 1956년 이후 전영창은, 거창고등학교를 운영하면서도 고신교단과의 공적인 교제는 없었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역사편찬위원회,『한국장로교사(고신)』(부산: 고신출판사, 1988), 259-260.

2) 장기려, “한상동목사님과 나”, 이상규 최수경 편,『한상동 목사, 그의 생애와 신앙』(부산: 글마당, 2000), 195.

전영창은 경남구제회의 일로 고신교단의 일부 지도자들에 대하여 불편하고 서운한 마음과 불신감을 가졌을 수 있고 사적인 대화에서 언급했을 수도 있다. 이와 별개로 그는 설교에서 한국교회 전체를 염두에 두고 교회지도자들의 부도덕성을 비판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는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생애를 역사적 흐름에 따라 요약하여 언급할 때 경남구제회에 대한 일, 해명이나 서운한 감정을 전혀 표현하지 않았다.³⁾

사적인 관계에서 장기려와의 교제는 지속되었다. 전영창은 한상동목사의 신사참배반대와 관련된 일화를 학생 훈화와 설교에서 종종 사용하였고,⁴⁾ 대신동교회 최일영목사와의 친분과 그의 신앙배경을 예화로 소개하기도 했다.⁵⁾ SFC 전국수양회를 위해 거창고등학교를 개최장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한 후, 그 수양회의 좋은 면을 학생훈화의 예화로 사용하기도 했다.⁶⁾ 그리고 전영창의 설교와 훈화와 상담을 통해 목회자의 꿈을 가지게 된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았다. 그 결과 고신교단에는 전영창의 신앙적 열정과 정의감을 존경하고,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선생으로 자랑스럽게 말하는 목사들이 더러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복음병원의 초기역사에서의 간단한 언급 외에는, 고신교단의 역사 기술 및 연구에서 그를 적극적으로 다룬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한마디로 전영창은 고신교단의 기독교역사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전영창과 거창고등학교의 특별한 교육철학 및 교육방식에 대한 평가는 먼저 사회에서,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나왔다. 일찍이 1967년 경향신문사는 그에게 “국민이 주는 희망의 상”을 수여하였고, 그를 민족 및 민주 사회를

3) 예컨대, 전영창,『대망을 품으라』(거창: 거고출판부, 1977), 18; 전영창,『그들에게 누가 갈 것인가』(거창: 거고출판부, 1978), 158.

4) 전영창,『그들에게 누가 갈 것인가』, 115; 전영창,『전영창 전집 2: 검은 보자기에 싸인 축복』(거창: 거고출판부, 1990), 301-302.

5) 전영창,『그들에게 누가 갈 것인가』, 101-102.

6) 전영창,『그들에게 누가 갈 것인가』, 137.

위한 참 교육운동가로 평가하였다. 전영창은 거창고등학교를, 당시대 공립학교와 차별화된 새로운 종류의 학교, 곧 참교육을 실험하는 학교로 만들어왔으므로, 사회교육운동가들은, 전영창이 실천한 인간교육 또는 전인교육에 주목하였다. 입시성과가 고등학교교육의 성과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 한국사회에서 거창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보여준 대학 진학의 탁월한 성과는 전국의 고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주목을 받아 거창고등학교의 명성을 크게 높였다. 그의 사후 한 세대가 지난 2000년대에도 참여정부는 민주적인 인간교육과 입시에서 확인된 학력의 성과를 동시에 갖춘 거창고등학교를 학교개혁의 모델로 평가하였다.

거창고등학교 내에서는, 전영창의 삶과 교육적 카리스마에 깊이 매료되고 감동받았던 많은 졸업생들과 재학생, 그리고 교사들이 그를 탁월하고 위대한 선생으로 평가해왔다. 그가 갑작스럽게 소천하기 몇 달 전에 나온 제23회 졸업 앨범에는, 전영창이 학생들에 의해 들어 올려 진 사진에 ‘한국의 페스탈로찌’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다.⁷⁾ 그는 생전에 거창고등학교 졸업생과 재학생, 교사들에게 놀랍게도, 참된 선생의 모델인 페스탈로찌라는 친사를 얻었던 것이다.

교육철학자 강기수는 전영창이 민족교육자들인 도산 안창호나 남강 이승훈에 비하여 조금도 모자라지 않는, 한국교육사에서 보기 드문 훌륭한 교육자이며, 교육사상 연구를 통해 빌글되어 제대로 알려져야 할 한국의 교육사상가로 평가했다.⁸⁾ 해방 전후 우리 사회의 교육지도자들 중 친일 문제와 반민주적 기득권자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래서 순전히 애국적이고 민주적인 교육 지도자로 전영창 만한 교육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어서, 전영창은 근현대 한국 교육가들 중에서도 보석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영창은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주류 역사에서 아웃사이

7) 거창고등학교,『제23회 졸업기념앨범』(거창: 거창고등학교, 1976).

8) 강기수, “전영창의 생애와 교육사상”,『교육사상연구』27-3, (2013).

더였다. 그 이유는 한국 현대사회의 배경에 비추어 추론해 볼 수 있다. 우선 그는 한국사회 주류의 명문대학교, 혹은 국립대학교에서 교사교육을 받아 교육계에 광범위한 학맥을 갖게 된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학문인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 사회의 공인된 주류인, 지역 단위 혹은 전국 단위에 산재한 공립학교에서 일한 교사나 교육행정 공무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립학교법인을 운영한 사립학교 교육가였다.

중앙집권적인 교육행정 체제 하에서, 전영창은 고위 교육행정 공무원들의 권위적인 조처와 지도에 순응하는 대신, 법적 투쟁의 정점인 대법원 판결까지 갈등상태를 이어가 결국 승소하였으므로 교육당국에 미운털이 박혀있었다. 때로는 출신 지방으로 배제하여 전라도 출신이라거나, 왜곡된 권위주의적 반공국가의식의 관점에서 그를 국가관이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모욕적인 말을 듣기도 했다.⁹⁾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모범화 된 획일적 교육내용에 순응하는 대신 창의적인 교육을 시도함으로써 거창고등학교는 공교육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없었다.

그는 민주적이면서도 기초 이념에서는 공산주의를 반대한 우파여서 진보적인 좌파 사회운동가들이 처음 가졌던 공감을 지속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대학입시 성과의 탁월한 결과에 잠시 주목했던 사람들도 한국 현대사회에서 블랙홀처럼 뺄아들이는 수도권 집중화의 대세를 벗어난, 지방 소도시의 예외적인 사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교육학 내지 학교교육에서도 전영창은 여전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무엇보다 앞서야 할 평가는, 전영창이 자신의 정체성을 명료하게 표현했던 기독교교육가 혹은 기독교학교교육가로서의 평가였다. 그러나 전영창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진, 특히 전영창의 신학적 관점을 인정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전문적 평가를 받지 못했다. 전영창은 평생 학교교육에 집착했던 교육자였고,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목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혹은 학교와 더불어 일했으므로 언제나 그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붙였다. 그러나 그의 실제적 정체성은 ‘선생(님)’으로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렇게 표현할 때 전영창에 대한 교육학적 평가는 가능할지 몰라도 전영창의 내면적 의도는 여전히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한 채, 그 교육적 의도도 피상적으로만 알려질 때 때문이다. 연구자 혹은 관찰자가 전영창을 선생으로 다룰 때 역설적이지만 전영창의 교육관은 빈약하다. 그는 교육학적 패러다임에 따라 잘 정리한 교육론의 저서를 남기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많은 설교 및 훈화를 남겼다. 그리고 그는 학교교육의 목적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잠언1:7)”이라는 교훈으로 남겼다. 설교와 성경에 기초한 교훈 등은 전영창이 실제로는 학교교육을 신학적 패러다임에 따라 사고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전영창은 교사로 일컬어졌고, 학교에서 가르쳤으나 스스로의 역할을 ‘목자’에 두었다. 그를 선생 대신 목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기독교 교회 내에서 전문교사인 종교인을 고대 팔레스타인 농경사회의 목축활동으로부터 그 상징을 끌어와 목자에 해당하는 목사로 칭하고, 신자들을 양으로 칭하면서, 종교적 돌봄 활동을 목회라고 표현하는 맥락에서의 표현이다. 그는 교회의 경우에 목사인, 학교의 목사 혹은 목자였다. 비록 그가 한국교회를 위해 목사로 임직 받는 대신, 학교에서 교육자로 일했지만, 그는 학교에서,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신앙과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지식과 사회를 가르치면서, 인간교육을 실천한 목자였다.

전영창에게 목자의 정체성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는 처음부터 미국 선교사 윌리엄 린턴의 지원으로 미션스쿨인 신흥학교에서 근대 중등교육을 받았고, 신사참배 행사 허락을 항의할 정도로 강한 신앙적 태도를 가졌다. 그는 린턴 교장의 도움으로 일본 고베의 중앙신학대학교에서, 이후에 미국

9) 전영창, 『대망을 품으라』, 85.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과 웨스턴신학대학원에서, 나중에는 콘콜디아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한 신학자였다.

당시대 우리나라 수준에서 볼 때 그는 전형적인 신학자였고, 목사로 취임하지 않았으나, 신학교육으로는 자격을 잘 갖춘 목사였다. 그래서 그는 거창고등학교에 채플시간을 만들어 설교하였고, 학교교회에서 설교하였으며, 한국의 많은 교회와 미국 교포교회에서도 설교하였다. 한국 교육계의 인사들보다 한국내의 선교사들과 미국교회 목사들과 깊이 교제하였고, 국가나 지역유지들로부터가 아니라 교회 신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학교경영을 위한 후원을 받았다. 전영창은 사실상 자신을, 교회가 아니라 학교를 사역지로 삼아 사역하는 목자(목사)로 여겼다.

신학교육을 받은 후 교회의 목사 직분을 갖는 대신, 교육자의 직책을 가지고 학교에서 목자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혼란스럽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이것은 근대학교 이전의 서양 학교교육역사에서, 그리고 근대이후에는 서양 기독교학교에서 당연한 것이었다. 그리고 외국 선교사들이 설립한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학교에서, 그리고 지금도 선교지의 기독교학교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다.

물론 이 현상은 비기독교 배경의 전통사회에 이어 일제 강점기동안, 그리고 해방이후에는 군사정권을 통해 견고하게 확립된 세속 국가 공교육제도에서는 공인된 형식에서 벗어난 형태였다. 흥미롭지만 이 이유 때문에 한국 기독교계 내에서도 교회와 국가(사회)의 철저한 분리원칙이 자연스럽게 수용되어 유지되어 온 결과, 신학(기독교)교육에서도 전영창은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다. 기독교교육이 학교를 세속적 사회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스스로를 교회 내의 교육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기독교교육학자들이 학교교육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기까지 전영창은 탁월한 기독교교육자이면서도 기독교교육학자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다.

이렇게 볼 때, 전영창에 대한 평가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셈이다.

전영창의 정신과 교육사상, 교육실천 이해의 열쇠는 ‘학교의 목자’라는 표현에 있다. 그의 제자들은 전영창의 정체성이 목자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전영창의 1주기 추모식에서 거창고등학교의 6회 졸업생이었던 신중신은 다음과 같은 추모시를 발표했다:¹⁰⁾

님은 하나님의 목자(牧者)로
이 고장에 오시어
여호와를 경외함과
십자가 보혈(寶血)의 뜻을 반들어 행하시고,

님은 끓는 정열, 타오르는 신념으로
이 학원을 일으켜 세워
진리, 사랑, 정의의 구현으로
교육의 거룩한 사표(師表)를 보이시다.

불의(不義) 앞에서는
맹수보다 더하고
일신의 고난과 의무 밑에선
위대한 노예로 순(殉)했던 이

님은 살아 생전에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었고
죽어선 한 알의 밀알로
이 땅에 묻히시다.

10) 전영창, 『대망을 품으라』, 14.

신중신의 추모시 첫줄에 나온, ‘하나님의 목자’라는 표현은 신중신의 직감적인 확신이면서도 전영창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영창에 대하여 소개하거나 평가해 온 글들은 이 표현으로부터 전영창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고, 신앙과 신학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전영창의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동일한 신학의 기초로부터 그의 교육을 설명해 내지 않았다.

전영창은 전형적인 실천적 기독교교육자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기독교 교육학의 관점에서 그의 기독교교육의 기초적 신념들을 해명해 보려 한다. 그가 실천적 기독교교육가이므로 이론적인 교육학적 패러다임이 아니라 그의 생애 및 신념 자체의 패러다임에 따라 해명해 보고자 한다.

2. 기독교교육의 기초적 신념

전영창은, 참 교육은 인간변화에 있어서나 아니면 지식이해와 처리능력에 있어서나 모든 경우에 기독교신앙으로부터 가능하다고 보았다. 전영창에 있어서 기독교교육은 기독교신앙교육 및 기독교신앙에서 유추되는 교육을 뜻했다. 그는 기독교신앙교육을 협의의 교회교육 혹은 교회 사역자 양성의 신학교육에 제한하지 않고, 학교교육에서는 기독교신앙의 유추로부터, 국가 사회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성의 필요에 맞게, 문학과 사회와 자연과 예술, 곧 문화의 제 학문문야를 탁월성 있게 가르치는 교육으로 이해하였다. 그래서 전영창의 기독교교육의 기초적 신념들은 기독교신앙교육 혹은 기독교신앙으로부터의 유추들이 한국사회의 시대상황적인 필요와 연결되어 확립되었다.

1) 기독교신앙에 기초한 애국심

애국심은 전영창의 내면적 정체성의 DNA에 새겨진 정보와 같았다. 그의 할아버지 전치선은, 일제강점기에 선교사의 전도를 조국 독립으로 나아가는 방법으로 받아들여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아버지 전일봉은 전영창이 출생한 지(1917년 12월 26일)¹¹⁾ 겨우 2년을 조금 지난 시점에 발생했던 3·1운동 당시, 읍내 장터에서 열변을 토하고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되어 몰매를 맞고 감옥 생활을 했다.¹²⁾ 전일봉은 아들 전영창이 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그이후의 중등교육을 위해 전영창을 기독교학교에 진학시키려는 강한 열망을 가졌고, 아들이 진학하여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후에는 더 극심한 내핍생활을 하면서도 부분적이나마 지원하였다.

전영창의 자발적인 애국활동은 우리사회의 변천에 따라 단계를 거쳐 일관성 있게 표현되었다. 첫 단계로, 일제 강점기 동안 전영창의 애국심은, 일본의 정신적 지배를 벗어나 정신적 저항과 독립 희망을 가능하게 한, 기독교적 신앙 행위로 발현되었다. 전영창은, 일본 식민지 정부의 완전한 지배 아래 있던 공립학교가 아니라 부분적이나마 그 통제를 벗어나 있어 민족의 미래를 꿈꿀 수도 있었던, 미국 선교사가 설립하여 운영한 신홍학교를 다녔다. 신홍학교 5학년 시절(1936년 가을), 일본 경찰의 강압적인 통솔 하에 학생들이 신사에 참배하러 이동하던 중, 그는 행렬을 빠져나와 교장이었던 린턴 선교사를 찾아가 행사동원 허락을 항의하였다. 이 행동이 린턴 교장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를 계기로 린턴은 이후, 전영창이 일본 고베에 있던 중앙신학대학교에 유학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11) 전영창의 저서의 약력에는 1917년 12월 26일로 기록되어 있으나, 전영창의 장남으로 거창고등학교 교장 및 이사장을 역임한 전성은은 필자의 원고를 읽고 실제 생년월일을 1916년 12월 26일로 수정해주었다.

12) 전영창, 『그들에게 누가 갈 것인가』, 149-150.

멘토로서 지속적인 도움을 주었다.¹³⁾

전영창은 일본유학시절, 기독교인 지성인 우찌무라 간조오가 “조선 젊은이를 위한 식전”이라는 주제로 한국유학생들에게 했던 강연의 핵심 주장, 곧 “정치적으로 독립을 잃은 너희의 조국을 성경으로써 구하라”¹⁴⁾는 말에 깊이 감명 받아 조국을 구하기 위해 성경을 가르치는 목자가 되기로 결단하였다. 따라서 그의 신학공부는 애국을 실천하는 방법이 되었다.

일본에서 공부하던 중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조선유학생들을 감시 하던 경찰이 기숙사에 있던 전영창을 사상 불온과 신사참배거절을 이유로 체포하였다. 전영창은 재판에 회부되어 2년 징역형을 언도받아¹⁵⁾ 1년 동안 후쿠오카 감옥에서 복역했고, 이후 귀국하여 5년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고난의 감옥 생활에서 기독교신앙은 전영창을 정신적으로 더 강하게 만들었다.

두 번째 단계의 애국 활동은, 대한민국이 국가상실의 두 번째 위기에 직면했던 6.25전쟁 시기에 발현되었다. 전영창은 전쟁 상황이 남한에 명백하게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구국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미국 유학 도중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급거 귀국하였다. 전쟁발발직후 주미한 국대사관에 귀국의사를 밝혀 지시에 따라 대기하던 중 미국의 한국철수소식이 알려지자 즉시 수학하고 있던 웨스턴신학대학원 학장에게 귀국의사를 밝혔다. 전영창은 웨스턴신학대학원 학장으로부터, 안전한 미국에 머물도록 권고 받았고, 한국의 가족도 미국에 오도록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또 학위를 받기 위해 마지막 단계인 졸업시험을 남겨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귀국을 결정했다. 그는 웨스턴신학대학원

존 둘더 학장에게 “나라가 망하는 판인데 졸업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을 전부 점령하기 전에 한국에 입국하여야겠습니다.”¹⁶⁾ “만약 공산주의가 한반도를 점령하게 되면 나는 조국에 돌아갈 기회를 영영 놓치고 말 것이다. 나는 그들의 목자(牧者)가 되기 위해서 오랜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막상 위험에 빠진 양을 모른 체하고 떠나버리면, 목자는커녕 사악한 사깃꾼이 아닌가? 공산주의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할 일을 찾아야겠고 또 그들이 한반도를 점령하면 지하운동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있다.”고 말했다¹⁷⁾.

그는 자신의 결단을 실행하여 유학생활을 포기하고 귀국하였다. 다행히 웨스턴신학대학원 학장은 이사장과 협의하여 졸업시험을 예외적으로 면제해주었고, 전영창을 위해 졸업시점을 앞당겨 졸업장을 수여해주었다. 전영창은 귀국한 후 부산에서 한상동, 김상도 목사 등과 협력하면서 대한기독교경남구제회를 만들었고, 미국에서 가져온 기부금을 기반으로 영도에 무료 병원인 복음진료소(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전신)를 세워 장기려, 전종희 등 의료진과 함께 의료 보건 사업을 했다. 6.25전쟁이 끝난 후 다시 도미하여 콘콜디아신학대학원에서 다음 단계의 신학 학위공부를 마칠 수 있었다.

세 번째 단계의 애국활동은, 1956년 이후 조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교육사업을 통해 표현되었다. 전영창은 학교교육을 통하여 애국하는 시민을 양성하려 했다. 미국유학을 마친 후 귀국하여 당시 린턴 선교사가 신설한 대전대학(한남대학교)의 부학장으로 일할 제안을 받았으나 그는 애국의 동기에서, 어려운 조건의 새로운 일, 곧 산촌 및 농촌마을이었던 거창의 폐교직전 학교를 인수하여 기독교학교교육을 실천하는 편을 선택하였다.

이 선택은 역사적으로 농촌사회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애국 계몽운동 흐름에 있기도 했고, 더 깊게는 이제 조국에서 동포를 돌보기 위해 목자가 되는

13) 전영창,『대망을 품으라』, 17; 전영창,『그들에게 누가 갈 것인가』, 152.

14) 전영창,『그들에게 누가 갈 것인가』, 153.

15) 전영창의 저서의 회고글에서 2년으로 기록되었으나, 전영창의 자료 및 설교집을 지속적으로 출간한 그의 장남 전성은은 필자의 원고를 읽고 5년으로 수정해주었다.

16) 전영창,『대망을 품으라』, 18.

17) 전영창,『그들에게 누가 갈 것인가』, 156.

준비를 마쳤으므로, 목자장인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양, 혹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회적 약자 집단의 동포들에게로 가야한다는 책무감에서 나온 결단이었다. 그는 나중에 ‘목자 없는 양’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렇게 고생하며 유리하는 내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목자입니다.”라고 호소 했다.¹⁸⁾ 그는 신학대학원 공부를 모두 마친 후 귀국 직전, 미국교회에서 에콰도르 밀림에 파송되어 일하던 미국선교사의 순교소식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고, 결국 조국에서, 마치 선교사들처럼, 소외된 시골에서 교육사업으로 학생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목자가 되기로 결심했다.¹⁹⁾

전영창은 조국을 위해서라면 더 낮은 자리에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우려했던 진정한 애국자의 모범이었다. 그는 거창고등학교에서 훈화 및 설교시간을 통하여 근대 서양의 위인들 중 애국자들을 모범으로 삼아 학생들에게 감동적으로 애국심을 가르쳤다. 그의 훈화와 설교에 예시된 애국자들 사례들은 전영창 자신을 투영한 것이기도 했다.

예컨대, 실낙원 저자인 존 밀턴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미 조국을 위하여 시(詩)를 희생하였으니, 조국의 자유를 위하여 눈 하나 희생하지 못하겠느냐”는 말을 직접 인용하고는 “그는 애국자였습니다. 애국자라도 슬그머니 일신의 부귀와 영화를 피하는 애국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모조리 조국의 자유를 위하여 즐거이 바칠 수 있는 애국자였습니다.”라고 설명하며 학생들이 애국심을 갖도록 호소했다.²⁰⁾ 그는 대망(大望), 고귀한 이상을 갖도록 독려하였고, 근대서양사에서 많은 사례들을 소개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위기의 조국을 구하거나 흥하게 하는 데 기여한 것들이었다. 전영창 자신이 애국자이면서, 애국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그의 교육 목표였다. 애국심을 가진 인간을 양성하는 일에 교회보다 학교가

더 적합한 장소라는 점이 그가 교회의 목자가 되는 대신, 학교의 목자가 된 배경이었다.

2) 기독교신앙에 기초한 고난 극복의 신념

전영창이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기독교신앙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확신한 이유는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에서도 꿈을 가지게 하고,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인내하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힘이 기독교신앙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전영창 자신이 학생들에게 고난을 극복하고 뜻을 이룬 모범 사례였다. 부모의 남다른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가정 형편과 일제 강점기라는 사회적 상황은 자신의 의지만으로 뜻을 실현해 가기에는 절대적인 한계의 벽과 같았다. 그러나 그는 기적처럼 전주의 신흥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하였다. 일본에 유학하여 중앙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으며, 미국에 유학하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웨스턴신학대학원, 콘콜디아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한 입지적 지식인이 되었다. 그리고 참교육을 실현하려고 고등학교의 교장이 되었다.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전영창은, 비슷한 가정형편, 더 어려운 시대 사회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기적처럼 꿈을 실현한 산 증거였던 셈이다. 전영창은 자신의 인생에서 꿈의 실현의 동력을, 그가 가진 기독교신앙 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기독교신앙이 말하는 하나님의 도움, 현세적으로 말하면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의 도움 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전영창은 기독교신앙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

동포의 ‘작은 목자’²¹⁾로 자처했던 전영창의 눈에, 일제 강점기에 이어 6.25전쟁을 거친 한국사회는, 자신이 청년기에 경험했던 일본과 미국 사회와

18) 전영창, 『그들에게 누가 잘 것인가』, 7.

19) 전영창, 『대망을 품으라』, 19.

20) 전영창, 『대망을 품으라』, 34.

21) 전영창, 『그들에게 누가 잘 것인가』, 7.

비교할 때, 절망적인 가난과 고난의 사회였다. 6.25직후 귀국하여 의료 구제 사업을 펼쳤고, 이제는 교육을 통해 세워가야 할 사회였지만 그 사회를 세울 수 있는 여건은 열악하기 짹이 없는 것이어서 오히려 절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적합했다. 그 중에도 거창은 “하나의 벼름받은 지역, 벼름받은 사람들의 상징”이었다.²²⁾ 현실적인 계산으로 서민들의 성공을 말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기만적 최면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므로 비전, 야망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의존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종교적 신앙뿐이었다. 그래서 훈화를 넘어 설교가 필요했다. 그러한 여건에서도 꿈을 가지려면 그는 무엇보다 신앙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 자신이 살아있는 증거이기도 했지만, 전영창의 훈화는 기독교신앙으로 가난과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의 사례 이야기로 가득했다.

벼름받았던 흑인 소년이었으나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과학자가 되어 생활의 변화에 크게 기여했던 조지 워싱턴 카버, 실패 후 마약중독과 노숙생활에서 벗어나 유명한 시인이 되었던 프랜시스 톰슨, 불치의 질병을 극복한 웨슬리 해블렛, 장애를 극복한 헬렌 켄터, 우리나라에서도 6.25전쟁에서 시력을 잃은 후 장애를 극복하고 원호행정을 개척한 호승환, 고아와 장애의 어린 시절에도 불구하고 교수가 된 김형식 등 수많은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그는 학생들에게 절망의 상황에서도 기독교신앙으로 가난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독교신앙의 기초 위에 서면, 개인의 현실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위대한 꿈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 확신은 전영창 자신의 인생으로 실현된 사례에 근거한 것이며, 그에게 그 확신은 청년시절 이 확신을 심어준 우찌무라 간조오의 실현 사례에서 왔고, 우찌무라 간조오는 일본에 왔던 미국인 교수

22) 전영창, 『그들에게 누가 갈 것인가』, 73.

윌리암 클라크의 외침인, ‘소년이여 대망을 품으라’(Boys, be ambitious!)는 말로부터 격려 받은 것이었고, 클라크는 일본학생들에게, 성경을 통한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그렇게 호소했던 것이다.²³⁾ 전영창은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이 큰 꿈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했다.

전영창은 성경 구절의 내용에 따라, 미래를 향한 꿈이 없는 개인과 민족은 망한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독교신앙 위에서 꿈꿀 때 고상하고 원대한 꿈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고, 그 때 개인의 성공과 국가의 번영이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것이 내가 이곳에서 기독교 교육을 하는 이유이며 이 신념은 우리 학교의 초석입니다. 기둥입니다. 친애하는 학생 제군들이여! 이 이상을 품으라!”라고 호소했다.²⁴⁾

전영창은 기독교신앙이,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끝까지 참아내게 하는 불굴의 정신을 갖게 한다고 가르쳤다. 전영창의 이 가르침은 자신의 인생에 근거한 것이었다. 가난, 일제강점기의 억압, 수감과 감시, 유학생활, 6.25전쟁, 학교경영의 어려움, 교육관청의 억압 등에도 불구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정으로 살아온 비결이 기독교신앙에 있었다.

자신이 가르친 제자들에게서도 이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례들을 찾아내어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동일시하게 했다. 그 중 장애를 가진 고아라는 역경의 현실에서 선교사와 전영창의 도움으로 교육 기회를 얻었고, 백질불굴의 의지로 성실하게 공부하여 마침내 교수가 된 김형식을 그는 ‘불굴인’(invincible man and woman)이라 칭하였고, 학생들에게 “거창고등학교는 이런 ‘invincible man’을 만들어 내는 학교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불굴의 남녀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가면서 노력하여서 기어코 목적을 이루고야 마는 ‘invincible man’, ‘invincible woman’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고 외쳤다²⁵⁾. 그의 이러한 자신감은 기본적

23) 전영창, 『대망을 품으라』, 42-43.

24) 전영창, 『대망을 품으라』, 41.

으로 기독교신앙에 근거한 것이며, 자신의 인생과 제자들의 사례에 기초해 있었다. 그는 ‘결코 포기하지 말라’(Never give up)는 주제의 연속적인 훈화를 통해 많은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학생들에게 불굴의 정신을 독려 했다.²⁵⁾

성공은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에서도 미래를 향한 꿈에서 출발하고, 어떤 경우에도 교육의 기회를 붙잡고, 그 교육의 과정을 감내하는 의지로 가능한데, 이러한 내면적 힘이 기독교신앙에서 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전영창은 학생들에게 기독교신앙을 갖도록 간곡하게 권했다. 그는 이러한 내면적 힘을 기르는 일에 훈화와 설교가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3. 기독교신앙에 기초한 교육적 인간상

교육은 유용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활동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교육을, 성숙한 인간을 형성하는 활동으로 본다. 전영창은 졸업생 훈사 서두에서 “‘사람을 만들자.’ 하는 것이 저희의 교육 이념중의 하나로서 이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저희 있는 힘까지는 다하여 보았습니다. 이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그 하나는 예배시간이요, 또 하나는 훈화시간입니다.”라고 말했다.²⁷⁾ 교육자가 꿈꾸는 것은 인간의 변화와 성숙이다. 전영창이 형성하려고 했던 교육적 인간상의 기초는 기독교신앙에 있었다.

참 교육자는 그가 교육활동을 통해 구현하려는 교육적 인간상에 스스로 구체적인 모범이 된다. 전영창의 위대함은 그가 가르치려던 인간상의 가치가

그 자신에게 구체화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그것이 학생들에게 큰 감화력을 준 이유이다. 물론 전영창이 사회적 관계에서 모든 사람들의 찬사만 받았던 것은 아니다. 그의 오랜 동역자였던 원경선이 전영창의 첫 번째 훈화집 머리말에서, 전영창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원만한 사람이기보다는 강한 개성과 주관을 가진 사람이었고, 다혈질적이고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었으며, 실수를 범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한 것처럼²⁸⁾ 그는 언제나 완벽한 이상적 인간상을 보여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가 교육을 통해 형성하려던 인간상의 특성에는 그대로 부응하는 모범이었다. 두드러진 몇 가지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정의로운 인간

첫째, 교육이 구현해야 할 인간은 정의로운 인간이라고 보았다. 교육받은 인간은 자신을 향하여는 도덕적 인간이어야 했다. 도덕적 인간이란 개인의 내면에서, 실용과 실리를 따르는 것, 이익과 욕심을 위해 부정과 부패를 행하는 것, 거짓과 증오, 육체적 향락, 윤락과 마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 신의, 도의, 정의, 성실, 애국, 사랑과 희생 등의 도덕적 가치를 따르는 인간이라고 보았다.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지향하는 정신은 동물과 다를 바 없는 것이며, 교육은 이러한 특성 대신, 도덕적으로 고상하고 건전한 정신을 길러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기독교신앙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부도덕하고 이기적인 특성은 옛 사람의 특성이므로 회개를 통해 새사람의 도덕적인 특성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마음(심뽀)을 고치는 것을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러한 혁명이 먼저 개인에게서 일어나야 하고 또 민족의 차원에서도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고, 개인 및 민족의 인간개조, 인간 혁명을 위해 자신이 교육사업

25) 전영창, 『대망을 품으라』, 56.

26) 전영창, 『그들에게 누가 갈 것인가』.

27) 전영창, 『그들에게 누가 갈 것인가』, 8.

28) 전영창, 『대망을 품으라』, 7-8.

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²⁹⁾

교육받은 인간은 사회를 향하여는 정의로운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했다. 전영창의 오랜 동료였던 원경선은 전영창을 정의에 대한 신념이 누구보다 강한 사람, 불의와 비진리에 타협하지 않고 대결하는 사람이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난관에 봉착해도 정의를 위해 투쟁하였고, 학생들에게도 정의감을 고무하고 정의의 승리를 확신하도록 가르쳤다고 말했다.³⁰⁾

사회적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의감은, 일찍이 일제강점기 3.1운동과 농촌운동의 흐름에서 실행된 신사참배거부와 수감, 4.19혁명에서는 반민주주의 독재 정권에 반대한, 명백한 민주주의 입장표명, 1969년 거창고등학교학생 운동에 대한 경남교육위원회의 부당한 조처에 대한 법적 투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전영창은 스스로 정의감의 모범이 될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정의를 위한 투쟁을 가르치고 격려하였다. 부정과 부조리와 부패로 가득한 사회, 극심한 빈부격차, 공해문제, 각종 차별문제, 권력자들의 기만성에 순응하지 말고, 자유와 평등과 평화의 사회로 변혁하려는 혁명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그 혁명방법은 공산주의자들처럼 폭동과 폭력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 현대적으로는 마틴 루터 킹의 방법처럼 비폭력과 사랑의 방법이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그런 방식으로 투쟁해도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신앙적 신념 때문이었다.

2) 교양과 실력을 갖춘 글로벌 지식인

둘째, 교육이 구현해야 할 인간은 교양과 실력을 갖춘 글로벌 지식인이라고

29) 전영창, 『대망을 품으라』, 85.

30) 전영창, 『대망을 품으라』, 7.

보았다. 전영창은 고등학교 교육자였으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높은 수준, 곧 미래 지도자적 소양을 염두에 둔 교육이었다. 우선 전영창 자신이 고등학생들을 위한 교사의 수준이기보다 대학생을 가르치는 교수 수준이었고, 그의 훈화는 대학 교양과정을 이수하는 대학생들을 향한 것처럼 수준이 높았다. 그는 당시대 보통의 고등학교 교사나 교장과 다른 수준의 교육자였다.

그의 일상 훈화나, 신입생 혹은 졸업생을 위한 훈사는 1-2시간 계속되는 긴 특강이었으며, 소논문과 같은 논의를 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훈화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 애써 준비했다. 그 훈화에서 그는 국어교과서에서 이름과 제목만 들어보았던 외국 소설가와 시인들과 미술가들을 직접 다루었다. 역사교과서에서 이름만 알고 있는 서양 근현대국가 정치인의 인격과 시대 배경을 다루고, 한국역사의 주요 인물들을 생생하게 다루었다. 도덕교과서에서 이름만 알고 있던 철학자들과 그 사상의 배경과 핵심을 다루었다. 과학교과서에서 요점만 다룬 과학자와 이론의 배경과 의미를 다루었다. 설교시간에는 고대 근동, 그리스와 로마의 배경사와 서양 고전어, 기독교 신학을 쉽고도 명쾌하게 설명하였다. 훈화는 소논문들의 경우처럼, 권위에 의지하여 강요하기보다, 문제를 깊게 논의하고, 분명한 근거에 기초하여 설득해가는 연설들이었다.

전영창은 공부하는 학생들이 흄모하는 글로벌 지식인이었다. 한문과 일본어, 영어를 거침없이 구사하는 글로벌 지식인이었고, 특히 영어를 탁월하게 구사하고, 언어 용법들을 실제 생활 안에서 쉽게 설명해줄 수 있는 지식인이었다. 영어교사보다 더 탁월하게 실제 영어를 구사하는 지식인이며, 미국에 많은 친구와 협력자들을 두고 있는 글로벌 지식인이었다. 그는 훈화와 설교에서 영어문장을 그대로 구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요한 부분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영시, 영미 격언과 시사 잡지들을 사용하면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전영창은 거창고등학교가, 비록 수도권의 시각에서 볼 때 시골의 한 학교였

고, 교사의 근무조건도 좋지 않았지만, 자신과 같은 교사, 곧 실력과 헌신과 열정과 신앙이 뛰어난 교사들이 좋은 학교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알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직접 교사들을 모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실력이 탁월하면서도 헌신과 열정을 겸비한 교사들은 시골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입시 성적이라고 믿기 어려운 놀라운 결과를 산출하였다. 학생들은 거창에 소재한 시골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중심인 서울, 그리고 북미지역에 비교하여, 스스로 폐쇄적 열등감을 가진 것이 아니라 교양과 실력을 구비한 의식 있는 글로벌 인간이 되고 있었다. 전영창은 거창고등학교교육을 통해 한국사회와 세계에서의 리더십을 지향할 수 있는 교양, 실력을 가진 글로벌 지식인을 양성하려 했다.

전영창의 훈화와 설교에 나타나는 교양, 학문, 글로벌 시사문제, 외국어는 기독교신앙에 의해 해석된 기독교적 지성이었다. 그에게 기독교신앙은 고립된 공동체의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지성과 세계를 향하여 문을 여는 열쇠였다.

3) 국가와 사회, 약자와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인간

셋째, 교육받은 인간은 국가(민족)와 사회적 약자와 인류에 봉사하는 인간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전영창은 학생들이 개인의 영달과 명예에 초점 맞추어진 애심이 아니라 더 큰 이상, 정말 고귀한 이상을 가져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고귀한 이상은 공동체, 민족, 국가, 민주주의 사회, 사회적 약자들, 인류의 회복과 번영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였고, 현대시대정신에 나타나는 개인주의, 실리주의, 이기주의 세태를 강렬하게 비판하였다.

위대한 사람들의 수많은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고귀한 이상을 향한 수고가, 정당한 보상의 포기, 상당한 희생과 불이익을 요구한다고 해도 선택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나라가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이타적인 인물로서 남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봉사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갓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니요 인류의 역사가 똑똑히 증명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³¹⁾

그는 좋은 대학을 졸업한 제자들이 모교의 교육사업에 참여하기를 거절할 때, “아! 내 교육은 결국 실패로구나.”³²⁾라고 한 숨을 내쉬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삶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지침들을, 성경의 십계명처럼, ‘직업선택의 십계’로 만들어 제시하였다. 직업 선택의 십계명은 다음과 같다:³³⁾

제1계명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제2계명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제3계명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제4계명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제5계명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제6계명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제7계명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제8계명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제9계명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제10계명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 직업선택의 십계명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순전히 이상적인 요구나 주장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계명들은 전영창의 실제 인생이었으므로,

31) 전영창, 『그들에게 누가 잘 것인가』, 36-37.

32) 전영창, 『그들에게 누가 잘 것인가』, 71.

33) 거창고등학교 홈페이지(geochang-h.gne.go.kr)

특히 그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로 하여금 이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요구한, 동시에 그러한 인생의 모범을 보인 예수님의 실제 삶이었으므로, 전영창의 제자들은 이 십계명의 요구를 비현실적이고, 순전히 이상적 요구라고 말하지 않는다. 설사 그러한 삶을 선택할 수 없다고 해도 그러한 삶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십계명의 가르침을 좋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였다.

4. 나가면서

전영창은, 거창고등학교가 교육을 통해 민족과 조국과 사회적 약자와 인류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는 일에 최적의 교육내용과 여건을 구비하도록, 자신의 인생과 전 재산을 드렸고, 미국과 네덜란드 기독교 단체들로부터 원조를 얻어내어 교육시설을 확장하였으며, 결국 겹친 파로에서 온 질병으로 아쉽게도 향년 59세만인 1976년 5월 26일 소천하였다.

전영창은 그를 학교의 목자로 부르신 예수님보다 더 오래 살았으나,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살다 갔다. 그래서 그는 앞서 인용된 제자 신중신의 추모시에서 ‘하나님의 목자’로 칭해졌고,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묻혔다고 회고되었다. 전영창의 장남으로 그의 교육사업을 이어 혼신했던 전성은은 필자와의 며칠왕래에서, 아버지 전영창은 오직 예수만 알던 사람이었다고 회고했다. 필자가 전문교양도서 출판의 필요를 위해 전영창의 사진을 부탁했으나 그는 끝내 전영창의 정신을 생각하여 사진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영창의 인생은 기독교적 참 교육의 모범이 되어 지금도 그 이름과 교훈으로 살아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을, 그리고 기독교학교교육을 열망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

고신교단은 역사적 초기에, 교회의 참된 목사로서 한상동, 보건 분야에서 참된 의사로서 장기려, 교육계에서 참된 교사로서 전영창을 가졌다. 그러나

고신교단의 좁은 관심과 이원론적 시야는 한상동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장기려는 줄곧 고신교단의 경계선 안팎을 맴돌았고, 복음병원은 공적으로 수용되었지만 종종 부담스럽게 여겨지기도 했다. 그런데 전영창은 고신교단을 곧 떠났고, 이후 마음으로만 이어져있었으며, 거창고등학교는 고신교단과 무관하였고, 단지 졸업생들은 신학지원 학생들로 고신교단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각성되지 못했을 뿐, 한상동에 의한 고려신학대학교(고신대학교)가 해방이후 한국 기독교계의 모델이 되었던 것처럼, 장기려에 의한 복음병원은 해방이후 한국 기독교병원의 모델이었고, 특히 전영창에 의한 거창고등학교는 해방이후 한국 기독교학교의 모델이 되었다. 따라서 전영창과 거창고등학교는 한상동과 고신대학교만큼이나 의미 있는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장기수. “전영창의 생애와 교육사상”. 「교육사상연구」 27-3 (2013): 1-27.
- 거창고등학교. 『제23회 졸업기념앨범』. 거창: 거창고등학교, 1976.
- 거창고등학교. 『거창고등학교의 스승 전영창 이야기』. 서울: 종로서적, 1996.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역사편찬위원회. 『한국장로교사(고신)』. 부산: 고신출판사, 1988.
- 배평모. 『거창고등학교 이야기』. 서울: 종로서적, 2000.
- 장기려. “한상동목사님과 나”. 이상규 최수경 편. 『한상동 목사, 그의 생애와 신앙』. 부산: 글마당, 2000.
- 전영창. 『대망을 품으라』. 거창: 거고출판부, 1977.
- 전영창. 『그들에게 누가 갈 것인가』. 거창: 거고출판부, 1978.
- 전영창. 『전영창전집 1』. 거창: 거고출판부, 1982.
- 전영창. 『전영창 전집 2: 검은 보자기에 싸인 축복』. 거창: 거고출판부, 1990.
- 전영창. 『전영창 설교집』. 서울: 한결음, 2012.
- 전영창.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서울: 마루그래픽스, 2013.
- 조성국. “전영창: 학교의 목자 조국의 목자”, 김도일 외, 『참스승: 인물로 보는 한국 기독교교육사상』.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198-208.
- 거창고등학교 홈페이지(geochang-h.gne.go.kr)

고신신학 16

Kosin Theological Journal

발행일 2014. 09. 10

발행인 전광식

편집인 송영복

발행처 고신신학회

등록 제 4-22호

주소 606-080 부산시 영도구 와치로 194
고신대학교 고신신학회

전화 051) 990-2348, 2276, 2273

디자인제작 : 한다디자인 02)961-7500

가격 7,000원

권고신신학회 소유